

# 축산농가 고령화 심화...“축사은행제”로 세대교체 지원

## 농촌경제연구원, 인력구조 변화 대응한 축산업 연구 유휴축사 활용 청년 진입장벽 낮추고 은퇴 기반 제공

축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청년 인력 유입과 유휴 축사 활용을 연계하는 ‘축사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를 통해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축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

되고 있다며 축사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축산농가의 고령 비율(65세 이상)은 54.1%로 2010년 29.6%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농가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의 69.7%는 후계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 의지는 높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련 전공 대학생은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77.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축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축사은행’ 설립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축사은행은 단순히 축사를 매매·임대하는 중

개기관이 아니라,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축사은행이 전국 축사 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 감정평가 모델을 마련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률·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령 농가의 원활한 은퇴와 자산 이전을 지원하고, 경제성이 있는 유휴 축사는 직접 매입·비축한 뒤 스마트 축산 시설로 리모델링해 청년 농업인에게 저리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령 농가에는 안정적인 은퇴 기

반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 진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우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자산 순환 체계를 구축해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도는 11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서남권(전남·광주)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산업 기반의 초광역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 전남광주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출범...초광역 생태계 구축

### 연간 153억원 투입...공동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 본격 추진

전남도와 광주시가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혁신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남도는 11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서남권(전남·광주)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산업 기반의 초광역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남도와 광주시, 한국산업기술포럼원, 혁신기관, 대학, 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전남·광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을 총괄 주관기관으로 광주지역산업진흥

원, 한국전력공사, 전남·광주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13개 혁신기관과 대학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5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남과 광주의 특화산업 및 혁신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102억원과 지방비 51억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전남과 광주의 산업·기술·인재를 연결하는 초광역 협력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그동안 추진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최근 3년간 혁신기업 800개사 발굴, 혁신인력 788명 양성, 사업화 매출 409억원 창출, 신규 고용 53명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에너지밸리와 지역 혁신기반을 중심으로 광주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 기반의 초광역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역기업 성장 지원에 힘을 쏟겠다. 조재용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추진단 출범은 전남과 광주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기관이 힘을 모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산업 혁신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세지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상'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활성화 공로

NH농협손해보험은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전남 나주 세지농협에 '위더스(With-us)상'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더스상'은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자산 보호에 기여한 우수 농·축협을 발굴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이 제정한 상이다. 나주 세지농협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은 김철회 NH농협손해보험 1부본부장, 흥현실 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장,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 제해중 농협 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해 전남농협 관계자와 세지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세지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해 왔다. 또한 조합원 삶의 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철회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세지농협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증진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 실업자 감소에 고용률 상승 '61.7%'

### 경제활동인구도 3000명 줄어...전남지역 고용 뒷걸음질

광주지역 실업자가 줄어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경제활동인구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실업자 모두 늘어난 가운데 고용률은 소폭 하락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률은 61.7%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취업자는 78만2000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실업자도 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2000명 줄고, 실업률은 3.0%로 0.3%p 하락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가 3000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도 6000명이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000명, 15.0%), 건설업(2000명, 2.5%)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제조업(8000명, -7.2%), 도소매·숙박·음식점업(5000명, -2.9%), 농림어업(3000명, -22.5%)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8000명, 5.9%), 서비스·판매종사자(6000명, 3.0%)가 증가했고, 관리자·전문가(1만1000명, -6.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000명, -0.6%), 농림어업숙련종사자(1000명, -3.6%)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3000명(-0.5%) 줄었다. 이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3000명(1.9%) 늘었지만 상용근

로자 4000명(-0.8%), 일용근로자 2000명(-6.8%)이 각각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4000명(2.9%)이 증가하면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이어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끊어냈다. 지난달 전남의 고용률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고 취업자는 10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상승했고, 실업자는 1000명 늘어난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7000명, 4.6%), 건설업(5000명, 7.0%),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3.3%), 제조업(3000명, 2.6%)에서 증가했다. 농림어업(1만4000명, -6.8%)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급감했다. 제조업 취업자 중 반도체 비중은 4% 뿐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되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을 받았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순천 '귀리 누룽지 한잔' 농식품장관상 영예

### 농업회사법인 쌍지들 전통식품 개발...농가 계약재배 상생

순천의 농업회사법인 쌍지들 전통식품이 개발한 '귀리 누룽지 한잔'이 전국 쌀가공식품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전남 쌀가공식품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도는 순천에 위치한 쌍지들 전통식품의 '귀리 누룽지 한잔'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쌀가공품 품평회는 국산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다. 올해 품평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제품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유동 전문 MD 상품성 평가, 위생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우수 쌀가공품 10점이 선정됐다. 장관상을 수상한 '귀리 누룽지 한잔'은 국산 쌀과 귀리를 활용해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누룽지 제품이다. 쌍지들 전통식품은 이번 수상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주요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쌀 소비 촉진 행사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13년 설립된 쌍지들 전통식품은 누룽지와 쌀과자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특히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국내의 판로 확대와 함께 소비계층을 늘릴 수 있도록 꾸준히 펼치는 등 지역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수상 제품인 '귀리 누룽지 한잔'은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6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쌀플러스 종합전시관에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소개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남 쌀가공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전국에 알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쌀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전남 쌀 소비 촉진과 가공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유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티에스감탄' 품질 평가회를 열고 시장성을 점검했다.

## 신품종 방울토마토 '티에스감탄' 주목

### 전남농기원 개발...가락시장 평가회서 유통 경쟁력 점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방울토마토 '티에스감탄'이 본격적인 농가 보급을 앞두고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사와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유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티에스감탄' 품질 평가회를 열고 시장성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유통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품종의 상품성을 검증하고 향후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에서는 맛과 당도, 외관, 식감은 물론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도(단단함)와 저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유통 전문가들은 '티에스감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균일한 색상과 단단한 과육, 신선한 짙은 상태를 꼽았다. 특히 유통 과정에서도 꺾기가 쉽게 시들지 않고 과육이 단단해 상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반면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차별화 요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외관과 맛이 기존 시중 품종과 비슷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성이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선호하는 12~25g 크기의 소과 생산을 위해 열매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재배 관리와 선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적당하고 꺾기가 심상하며 유통 과정에서 쉽게 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야 한다”며 “꺾질이 일안에서 결들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 역시 재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이번 평가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품종 개선과 재배기술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가 보급 확대와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